
「G20 의장국 웰빙·지속가능성 측정 국제회의」 참가 결과 보고

2011. 10.

목 차

I. 개 요

1. 회 의 명	3
2. 회의장소 및 일시	3
3. 회의주관 및 개최목적	3
4. 대 표 단	3

II. 회의 프로그램	4
-------------------	---

III. 주요활동

1. 「한국의 삶의 질 측정」 발표	5
2. 국제통계 협력 활동	5
3. 관찰 및 평가	6
4. 주요 내용	7

IV. 기 타

1. 주요 해외인사 명단	12
2. 주요 연락처	13
3. 사 진	14

V. 발표자료 (별첨)

1. 개막연설(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
2. 주요국가 : 한국, 영국, 일본, 독일, 뉴질랜드
3. 개발도상국 : 콜롬비아, 부탄

1. 회 의 명

- G20 의장국 웰빙·지속가능성 측정 회의
(What new well-being and sustainability measures in G20 countries?)

2. 회의장소 및 일시

- 회의장소 : 프랑스, 파리 OECD 컨퍼런스 센터
- 회의일시 : 2011. 10. 12.(수)

3. 회의주관 및 개최 목적

- 회의주관 : OECD와 프랑스 정부 공동 주관
 - 개최목적 : 웰빙과 사회발전에 대한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측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스티글리츠 보고서 출간 후, 2년 동안 각 국가에서 진척시켜 온 웰빙 측정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함
- ※ 참가규모 : OECD 사무총장, 프랑스 경제산업부 장관, 환경부 장관, OECD 회원국 및 개도국 통계청장·전문가, 스티글리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 450명

4. 대 표 단

- 단장 : 우기종 통계청장
- 단원 : 국제협력담당관실 정인숙 과장, 서경숙 사무관, 통계개발원 이희길 사무관

II

회의 프로그램

세션	프로그램 및 연사
09:00~10:00	소개세션 (Introductory Session)
	• Nathalie Kosciusko-Morizet, 환경교통주택부 장관 •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 • Joseph Stiglitz, 컬럼비아대 교수
10:15~12:15	새로운 웰빙·지속가능성 측정 방법 (Towards New Well-being and Sustainability Measures)
	• 좌장 : Jean-Paul Fitoussi, 파리정치대학 석좌교수 • 발표자 - Martine Durand, OECD 통계국장 - Jean Philippe Cotis, 프랑스 통계청장 - Eduardo Pereira Nunes, 전브라질통계청장 PUC-Rio 대학 교수 - Ki-Jong Woo, 한국 통계청장
14:00~15:30	새로운 측정 방법과 공공정책 (New Measures and Public Policies)
	• 좌장 : Angus Deaton,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 발표자 - David Halpern, 영국 총리실 행동통찰팀장 - Shuzo Nishimura,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원장 - Christoph M. Schmidt, 독일경제전문가이사회 회원 - Ben Gleisner, 뉴질랜드 재무부, 생활수준프로젝트팀장
16:00~17:15	개발도상국에서의 웰빙 측정 (Measuring well-being in developing countries)
	• 좌장 : Francois Bourguignon, 파리경제대학원장 • 발표자 - Paul Cheung, UN 통계처장 - Ahmed Lahlimi Alami, 모로코기획위원회 원장 - Hernando Jose Gomez, 콜롬비아 국가기획국 국장 - Sabina Alkire, 부탄연구센터 옥스포드 빈곤인간개발이니셔티브 과장 - Carlos Alvarez, OECD 개발센터 부국장
17:15~18:00	결론(종합토론) (Conclusions: Roundtable)
	• 좌장 : Enrico Giovannini, 이탈리아 통계청장 • 발표자 - Joseph E. Stiglitz,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 Jean-Paul Fitoussi, Emeritus Professor, IEP, Paris - Pier Carlo Padoan, OECD 사무차장/수석이코노미스트 - Walter Radermacher, 유럽연합 통계처장

1. 통계청장의 「한국의 삶의 질 측정」 발표

- 경제발전에 부응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정책 지원을 위해 수행된 한국 통계청의 삶의 질 측정 연구 성과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인문연구회의 측정 결과를 소개하고, 본 아젠다 관련 향후 전 세계가 공동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를 제시
- 통계청은 그간 학제간 공동연구를 통해 삶의 질 지표체계(9개 영역, 111개 지표)를 구축한 상태로, 측정틀을 중심으로 기초통계 집적의 단계이며, 국민과 정책수립가를 모두 고려한 자료활용 방안을 마련 중
- 경사연은 2009년 이후 3개 차원(성장동력, 사회통합, 환경), 6개 영역별 지수화를 통한 38개국 국제비교를 수행
- 전 세계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① 종합지수화의 방법과 주체, ② 웰빙 측정에서 국가통계청의 역할, ③ 측정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제시하고, 국가통계청·국제기구·연구소의 공동노력으로 본 아젠다를 진일보시킬 수 있어야 함을 역설

2. 국제통계 협력활동

- EU통계처(EUROSTAT) 및 프랑스통계청(INSEE)과 통계협력방안 협의
- EU 통계처장(Walter Radermacher)과 한-EU 통계협력 MoU 체결('10.6월) 이후 첫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한-EU 통계비교보고서*」를 내년 양측 정상회담 시기를 기해 발간할 것에 합의
- * 인구·소득 등 10개 경제·사회 분야에 관한 186개 통계지표 수록

- 후속 협력으로 EUROSTAT과 통계인력 교류를 타결함으로써 선진 통계 작성기법의 습득·적용을 통한 우리 통계 선진화의 길을 개척
- 통계청 직원 파견은 2002년 이후 중단된 것을 재개하는 것으로, 이는 한-EU FTA 발효('11.7월)로 인한 양측의 관계 긴밀화에 따른 통계협력 강화 필요성 및 통계청-EUROSTAT간 MoU 체결 이후 진행된 통계협력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프랑스 통계청과는 국세자료를 활용한 기업체통계 작성, 응답부담 감소를 위한 행정자료 활용 분야의 경험공유를 통한 협력을 협의 하고, 다국적기업 프로파일링 등 최신통계 추이 논의
- 또한 INSEE가 보유한 우수한 통계인력양성 프로그램(ENSAE, ENSAI)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한국 통계청 직원의 훈련파견 가능성 을 타진하여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냄

* ENSAE : Paris Graduate School of Economics, Statistics and Finance
 ENSAI : National School for Statistics and Information in France

○ 주OECD 대표부 대사와 우리통계 선진화 의견 교류

- 글로벌 리더로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통계생산 및 자료 제공의 필요성과 우리 통계의 OECD 발간물 수록 개선을 통해 국제 비교와 정책 모니터링의 효과를 제고하는 노력 개진 등 논의

3. 관찰 및 평가

- 스티글리위원회의 권고에 기반하여 OECD가 주도하는 웰빙측정 결과물(How's Life?)이 발간되었고,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관심과 참여 속에 웰빙 측정이 진행 중이거나 측정 결과의 정책활용 검토 등 성과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음

- 국가별 진척 정도는 다르나, 독일과 프랑스는 공동작업을 추진하여 결과물을 제시하였고, 영국은 측정 결과를 2012년에 발표할 예정
- 동 아젠다는 우리의 국가통계 발전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므로 국제적 차원의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및 국내적으로도 후속 작업 추진이 필요
- 웰빙 측정을 위한 주관적 지표 측정의 필요성 및 공식통계 영역 확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구체적인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 필요
 - 웰빙의 포괄적 설명을 위해 국가통계의 전통적 영역인 객관적 지표를 보완할 주관적 웰빙 측정 지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
 - OECD의 「How's Life?」, 영국, 일본 등도 주관적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도 공식통계 차원에서 주관적 웰빙 측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웰빙 측정의 기존 GDP 대체 혹은 보완 가능성은 여전히 도전적 과제이지만,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지표체계를 도출하고 사회적 합의를 구축해 나가는 글로벌 노력에 동참하여 국내적으로도 동 아젠다를 진일보시킬 필요가 있음

4. 주요내용

(1) G20 의장국 웰빙·지속가능성 측정 회의

- OECD 50주년 기념발간물 「How's Life?」 소개 (OECD 통계국장 Martin Durand)
 - 현재의 삶의 질이나 물질적 생활조건과 함께 미래의 웰빙인 지속가능성도 포함한 11개 영역별로 주요 지표에 대해 40개국 국제비교를 제시

- 본 보고서의 주요결과를 보면, 어떤 국가도 모든 차원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국가별 장단점이 다르지만 공통된 경향은 관찰됨
-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더불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연계가 약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
- 장기실업자는 젊은 계층에 많이 분포하고, 일·가족 양립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낮음
- 사회적 관계망이 증가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증가
- 환경의 지속가능성에서 수요기반 이산화탄소 배출이 생산기반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빠르게 증가

○ 선진국의 웰빙 측정 사례 발표

- 스티글리츠보고서의 권고 및 OECD 글로벌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측정 사례가 제시됨
- 일본은 동일본 지진 이후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내각부의 신성장전략(2011)에 행복지표를 포함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행복 측정을 추진 중
 - 웰빙지표에는 주관적 웰빙, 웰빙 지원 측, 지속가능성을 포함
 - 특히, 물질적 웰빙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행복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강화할 계획임
- 영국도 국가통계청(ONS)에서 정책적 접근의 하나로 주관적 웰빙을 채택하고, 웰빙의 객관적 측정과 함께 주관적 측정방법을 개발 중임
 - 조사표를 확정하면 2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 그 결과로 정책 평가 및 실천적 정책합의를 도출할 계획

- 독일은 기존 경제지표의 문제점에 공감하나, 금융위기 이후 성장 없는 웰빙 가능성에 대한 논쟁으로 자산에 대한 총체적 측정에 관심을 둠
- 스티글리츠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프랑스와 공동으로 “경제적 성취, 삶의 질, 지속가능성 모니터링(“Monitoring economic performance, quality of life and sustainability”) 보고서 발간(‘10)

○ 개발도상국의 웰빙 측정 및 정책활용 사례 소개

- 남미 국가 중에서도 빈곤율이 높고 불평등이 매우 심한 콜롬비아는 유엔 이니셔티브인 MDGs 측정을 소개하고, 빈곤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과 그 개선효과를 소개
- 부탄은 GDP 대신 GNH(Gross National Happiness)를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목표로 채택하여 정책에 적용하고 있으며, 정책 도입시 GNH와의 관련성을 심사하도록 하여 정책관련성을 강화하고, GNH 측정을 위해 별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 EUROSTAT 방문

- (주관적 웰빙측정) 스티글리츠위원회 보고서 발간 이후, 유럽에서도 ‘삶의 질’은 주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음
- 그러나 EU의 모든 회원국이 삶의 질, 특히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측정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모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행정자료 사용) 유로스탯에서 인구이동, 사망, 소득 등의 통계 작성시 관련 행정자료를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다만 국가별로 관련 법률이 상이하므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우수한 협력 국가 사례를 회원국에 소개함

- 오스트리아의 경우, 2011년 센서스에 등록자료를 활용, 향후에는 complete 등록 센서스를 추진할 계획이며,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잘 극복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EC 다른 부처의 요구 및 대응)** 일 년에 한 번 정책적 이니셔티브 등과 관련한 정례적 미팅을 가지는데, 신규 통계 생산 요구 부처가 예산 확보에 기여하므로 이 부문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
 - 반면, 인력 보강은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이전 사업(예:정보화사회 통계)을 중단하는 등 우선순위(priority)에 따라 활용
- **(사회통계지표 관련)** EU 사회현상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정된 지표 중 대부분은 고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EU내 노동시장의 이동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 유로스탯은 각 회원국의 방법론을 통합·활용하되, 특정 정책에 근거해서 노동시장을 전망하는 사례는 지양
- **(사업체 생멸통계)** 사업체 생멸통계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연구해 왔으며, 2008년부터 관련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조사와 더불어 행정 자료를 동시에 활용
 - 행정 자료는 사업체 관련 정보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주로 활용
 - 사업체의 birth-survival-death 자료는 activity별로 작성, 그러나 18개월 후에 자료가 송부되므로 시의성이 떨어짐
 - 유로스탯은 관련 분야의 방법론을 회원국간에 공유, 조정하고 있으며, 링크된 매뉴얼 및 high growing enterprise(근로자수가 연간 20% 이상 증가) 정보를 한국에도 제공
- 매뉴얼에 매칭기법 등 detective한 작업과정 등이 소개

- **(자료 연계)** 가구자료와 사업체 자료를 연계하여 dynamic statistics (global value data) 개발 필요
 - 유로스탯은 가구와 사업체 등 각각 다른 데이터소스를 연계·활용하는 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오고 있음
- **(신규통계생산 기법)** 자료의 matching, linking, mixed mode, macro validation(회원국의 자료 검증) 등에 주력

(3) 프랑스 통계청(INSEE) 방문

- **(훈련기관)** 프랑스 통계청은 2개의 우수한 통계인력 훈련기관*을 보유
 - * ENSAE (Paris Graduate School of Economics, Statistics and Finance) : 연간 약 125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으며, 경쟁시험 또는 일정 자격(M1, MASS)을 소지한 자만 입학(관련정보 : www.ensae.fr)
 - ENSAI (National School for Statistics and Information in France)(관련정보 : www.ensai.fr)
 - 통계청 직원의 훈련 파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입학자격, 교육 비용 등에 대해 협의
- **(행정자료 활용)** 프랑스는 법에 의해 통계청이 국세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체별 연간소득 등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산출
 - 각 사업체는 9 digit의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체 관련 자료간의 매칭·분석 작업이 가능
(예) 사업체내 고용자의 social security no.를 활용한 통계생산
 - Business panel survey를 실시(3년 후 50%의 표본이 생존)
- 기타 다국적기업(MNE) 프로파일링 등 Linking business data 측면의 최신 통계 생산

IV

기 타

1. 주요 해외인사 명단

성 명	사 진	직 위	비 고
Nathalie Kosciusko-Morizet		프랑스 환경교통주택부 장관	
Francois Baroin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부 장관	
Mr. Jean Philippe Cotis		프랑스 통계청장	
Joseph E. Stigliz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Jean-Paul Fitoussi		파리정치대학 석좌교수	
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	
Walter Radermacher		유럽연합 통계처장	
Marine Durand		OECD 통계국장	

2. 주요 연락처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비 고
주OECD 대표부	대사	허경욱		kwhur@mofe.go.kr
	주재관	김석원	Tel)33-1-4405-2060 Fax)33-1-5628-1771	kimsw@bok.or.kr sokwkim@gmail.com
OECD 통계국	통계국장	Martine Durand	+33-1-4524-8707	Martine.Durand@oecd.org
	주재관	손영태	+33-7-6191-4895	young-tae.son@oecd.org
	행사코디네이터	Suzanna Grant-Kejairi	Tel)33-1-4524-1802 Fax)33-1-4430-6388	Suzanna.GRANT-KEJAIRI@oecd.org
Eurostat	통계처장	Waltar Radermacher		
	국제국장	Pieter Everaers	+35-2-4301-36847	Pieter.Everaers@ec.europa.eu
	국제과장	James Whitworth	+35-2-4301-36857	james.whitworth@ec.europa.eu
INSEE	통계협력 및 국제과장	Philippe CUNEO	+33-6-6013-6585	philippe.cuneo@insee.fr
	유럽 및 국제과장	Raoul DEPPOUTOT	+33-1-4117-5296	raoul.depoutot@insee.fr
Novotel Paris Tour Eiffel		대표전화	+33-1-4058-2000	H3546@accor.com
대한항공	대전GTR	박영철	+82-42-488-0736	
인천공항	의전담당	김익현	+82-16-590-6377	
통계청 비서실	비서실장	문정철	+82-42-481-2103 +82--10-5237-1802	
	수행비서	나창엽	+82-42-481-2105 +82-17-407-1801	
	운전기사	최청환	+82-10-7614-0499	22허 1342 (검정색 체어맨)
통계청 당직실	-	-	+82-42-481-2151	

3. 사 진

[회의장]



[한국의 삶의 질 측정 발표]



[EUROSTAT 통계처장과]



1. 개막연설(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

2. 주요국가

- ☐ (한국) Measuring Quality of Life in Korea
- ☐ (영국) Well-being Measurement and Policy Implication :
progress in the UK
- ☐ (일본) 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 Initiative by the Japanese
Government
- ☐ (독일) New Measures and Public Policies : The German Perspective
- Balancing the Desirable, the Achievable, and the Unreasonable
- ☐ (뉴질랜드) From Welfare Reform to the Debt Crisis : How our
new policy framework is informing our advice

3. 개발도상국

- ☐ (콜롬비아) Poverty and Inequality Reduction Strategy in Colombia
- ☐ (부탄) The Gross National Happiness Index of Bhutan : Method
and Illustrative Results